

온라인 성범죄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한동수(MBC)

한국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한 두가지는 아닐 것이다. 정파적이고 선정적이고 단편적이다. 성범죄 보도라고 달라질 건 없다. 올해 상반기 한국 사회의 큰 이슈였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됐다. 지난 13일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수아 서울대 교수의 지적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용어의 선택부터 접근 방식까지 말이다.

무엇으로 명명할 것인가

잘못된 용어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몰카’이다. ‘몰카’라는 용어는 그 성범죄가 가지는 불법성을 희석시킨다. 물리적 폭력보다 덜 심각한 범죄라는 인상도 담겨 있다. 그래서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여전히 ‘몰카’라는 용어는 언론 보도에서 빠지지 않고 자주 등장한다.

이게 왜 문제냐면, 최근의 성범죄가 ‘디지털’이라는 수단으로, ‘사이버’라는 공간에서, ‘온라인’을 매개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집단 성착취 사건’으로 명명하는 언론 보도가 나타나는 것도 이런 고민의 결과일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언론이 ‘온라인 성범죄’를 기이한 신종 범죄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여성을 억압하는 젠더 폭력이라는 구조적 맥락에서 성범죄를 바라봐야지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특이한 범죄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사이에서 쓸데없는 가해 책임론이 벌어진 것도 ‘신종 범죄’라는 프레임에 빠져 본질을 놓친 결과이다.

왜 언론은 가해자의 서사에 주목하나

그나마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도하려는 움직임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가해자의 서사에 주목하지 말자”는 지침은 여러 한계를 보였다고 김 교수는 평가했다. 가해자의 서사는 성범죄에 필연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고, 때로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줄이는 전략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고,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고통을 잊게 만든다는 점에서 지양돼야 할 보도 행태로 지적돼 왔다. 이날 토론자 사이에서는 “사건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는 언론과 대중의 강박 (강보라 연세대 교수)”, “프로파일링 기법이 도입된 이후 가해자의 서사가 범죄 보도에서 클리셰가 돼 버렸다 (한동수 MBC 기자)”는 분석도 나왔지만, 어쨌든 가해자 중심 보도가 성범죄를 구조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이운소 민우회 활동가와 장은미 서강대 교수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라는 제도가 언론으로 하여금 가해자의 말에 주목하게 해 가해자의 서사 구조를 구축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 언론의 자정 능력을 넘어서 제도의 문제여서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대안적 스토리 텔링이 필요하다

이쯤 되면 조금 헛갈릴 수 있다. 피해자의 신상에 집중하지 말고 가해자의 서사도 뻔다면 무엇을 보도해야 한다는 말인가. 아무 것도 보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인가? 그래서 ‘대안적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아 교수는 “단순히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어떤 문화적 양식과 동기, 경제적 이익, 사회적 구조가 이런 범죄를 가능하게 했는지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관점의 보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은 보호해야겠지만, 어떤 구조 속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찰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이숙 동아대 교수는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구호에서 실천적 과제를 찾아보라고 제안했다. 기사 말미에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 하나 첨부하는 작은 실천부터 해보자는 것이다. 아울러 성범죄에 대해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긴 호흡의 기획 기사를 생산해 내는 것이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사실 긴 시간과 호흡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접근하는 기획 기사라면 구조적인 접근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속보가 중요해지는 국면에서 언론의 보도 행태는 급속하게 과거의 관행으로 회귀하고 만다는 점이다. 조주빈이 카메라 앞에서 유명인을 언급하자,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언론은 별떼처럼 유명인 관련 기사들을 쏟아냈다. 한동수 MBC 기자는 “축구로 비유하자면 언론은 상대의 공격 의도를 알면서도 매번 속는 수비수와 같다”고 말했다.

강보라 교수는 언론사 전체가 이윤극대화에 몰두하고 그 결과 포털 중심의 언론 시장이 구축된 상황에서 구조적인 관점의 보도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내다봤다. 언론뿐만 아니라 포털과 사법부 그리고 미디어소비층이 협력·견제하는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은령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장은 “성범죄 보도 관련 기준들의 효력이 없다고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미있는 지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떤 단어를 써야할지 토론하고 대립할 때 필요하나 지침들이 계속 제공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물론 이런 제안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전제는 언론이 최소한 현재의 성범죄 보도를 스스로 불편해하고 바꾸려고 한다는 알리바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